

목포대, 인도네시아에 방송통신대 추진

한국어 교육 등 교류·협력 확대 전문인력 양성 분교 유학 추진도

국립 목포대학교가 인도네시아에 목포대 방송통신대를 설치하는 등 교류 협력을 확대한다.

목포대는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송하철 총장이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PDIP당 총재를 만나 그동안의 교류·협력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메가와티 전 대통령은 협의를 위해 인도네시아 국가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국가연구혁신청 BRIN(The N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Agency) 회의를 직접 주관했다고 목포대는 전했다.

송하철 총장은 이 자리에서 인도네시아 ITS(Institut Teknologi Sepuluh)대학과 2018년 시작한 외국학생 대상 조선해양공학과 복수학위 과정 운영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그 첫 결실로 2022년 한명의 낙오자도 없이 29명의 인도네시아 학생이 졸업해 이들 중 9명이 한국 조선업 관련 기업에 취업하거나 대학원 학위과정 진학했다고 송 총장은 설명했다.

인력난을 겪는 전남 조선해양 기업을 위해 ITS 대학 및 인도네시아 대학과 더불어 연간 100명 이상의 융합전문인력을 현지에서 양성해 전남 조선해양 기업으로 유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목포대 송하철(오른쪽) 총장과 인도네시아 메가와티 전 대통령.

<목포대 제공>

특히 인도네시아 내에 목포대 방송통신대학을 개설해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확산에 힘쓰고 이들 중 우수한 학생은 목포대 분교로 유학을 추진해 지역산업 각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우수한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겠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메가와티 전 대통령은 인력양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히며 인도네시아 젊은 세대가 한국의 우수한 교육 협력을 통해 양 국가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

대한다고 호응했다.

메가와티 전 대통령은 2017년 11월 16일 목포대에서 명예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과의 지속적인 관심과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목포대는 메가와티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계기로 지역에 특화된 국제 공동 연구는 물론 우수한 외국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지역사회의 현안인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동신대, 전남·나주 미래발전 방안 모색한다

'NEXT 전남-나주상상포럼' 과학·인문학·산업 등 특강

동신대학교(총장 이주희)가 전남과 나주의 미래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한 정례 조찬포럼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동신대는 오는 23일 오전 7시 전남 나주시 빛가람 혁신도시 동신대 혁신융합캠퍼스 2층에서 조찬포럼 'NEXT 전남-나주상상포럼'을 출범시킨다.

'NEXT 전남-나주상상포럼'은 디지털과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대학과 지자체, 의회, 시민들이 함께 공부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담론을 형성하고, 전남과 나주의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과학기술, 인문학, 산업, 경제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맞춰 분야별 저명 인사의 특강을 마련해 사교의 지평을 넓히고 배움의 장을 제공한다.

동신대가 주최하는 제1회 포럼에는 동신대 교직원, 나주시와 나주시의회 관계자,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한다.

첫 초청 강연자로 나태주 시인이 나서며 'NEXT 전남을 여는 인문학의 힘'을 주제로

NEXT 전남과 나주를 열어가기 위해 인문학적 사고력을 키우는 방법 등을 강의한다.

동신대는 앞으로 조찬포럼을 혁신융합캠퍼스 주안으로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추진한다.

RE100, 디지털노마드, 창업, 청년 문제, 지역정주 여건 개선, 창의융합교육 등 주제별 파일럿 프로젝트 강연을 통해 지역 현안 문제를 공부하고 토론하며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오는 4월에는 정순남 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의 'RE100, 정주여건' 특강이 준비돼 있다.

동신대는 이와 별도로 6월, 9월, 12월 넷째 주 목요일에 대학 주관의 조찬모임을 열고 특별 강연자 초청 특강도 진행한다.

이주희 동신대 총장은 "디지털 대전환,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에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변화하는 세상에 개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저명인사 특강을 통해 배우고 지역 발전을 위한 담론을 만들며 지역과 상생하는 공유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동강대, 광주 북구와 청년창업가 육성 힘 모은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청년창업공간 지원 등 수행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광주 북구와 힘을 모아 청년 창업가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동강대 창업지원단(단장 박 경우)은 올해 광주 북구와 함께 창업 관련 정부 공모사업 3개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먼저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을 지난 2018년부터 6년째 진행하며 2개 유형으로 운영한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특목 투는 아이디어를 가진 광주지역 내 3년 이하의 생활혁신 창업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 동강대 창업지원단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4년 연속 우수 평가성과를 인정받아 인센티브 성격으로 올해 오지공방 입주기업들의 자생력을 돕는 프로그램까지 동시에 진행한다.

지역 내 청년 창업가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해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한 '연구임대주택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다. (사진)

앞서 동강대는 지난해 3월 광주북구를 비롯해 광주디자인진흥원,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대 창업보육센터 등과 협약을 맺고 ▲각화 창업공간(생활밀착형) ▲남구 스마트타운(ICT) ▲오지 마을공방(공예) 등 창업 분야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기업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 동강대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으로도 선정됐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선정된 21개 창업기업과 올해 신규 기업 7곳을 대상으로 '성장 UP 고용 PLUS' 지원 프로그램을 펼친다.

동강대는 사업 참여 업체를 모집해 스타트업(Start-Up)은 시행착오를 줄이며 안정적인 시장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갑갑이가 되고, 기술력과 마케팅, 투자 분야 등 양질의 경쟁력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된다.

박경우 단장은 "지자체와 함께 예비 CEO를 적극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교육청 '독서문화한마당'

22개 시·군도서관으로 확대

전남교육청이 '책 읽는 전남교육' 확산을 위해 권역별로 열렸던 '독서문화한마당'을 22개 시·군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전남도교육청은 목포·나주·여수 3개지역을 순회하며 열렸던 '전남독서문화한마당'을 전 시·군도서관으로 확대해 하반기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22개시·군도서관에서 독서문화한마당 행사가 열린다면 접근성의 제약으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했던 한계가 극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남 전역에서 책을 중심의 독서 소통의 장이 형성되면 책 읽기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은 전남독서문화한마당 실무 협의회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책과 관련된 토론·인문·교육·글쓰기를 중심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은 본청에 독서인문교육팀을 신설해 지역 도서관을 지원하고 권역별 거점도서관에 독서문화부를 설치해 창의·융합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박진수 전남도교육청 행정과장은 "학교와 지역사회에 책 읽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전남독서문화한마당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조선대, 양자내성암호 기술 특허 세계 23위

전국 4위 11건 보유...김영식 교수, 관련 특허 20건

조선대학교가 양자내성암호(포스트 양자암호) 기술과 관련한 특허를 국내에서 내뿜은 11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식 정보통신공학부 교수는 양자내성암호와 관련된 특허 20여 건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대학교(총장 민영돈)는 최근 차세대 암호 기술 시장 확산과 맞물려 양자내성암호와 관련된 특허를 11건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1월 특허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내용으로 크립토크(25건), 삼성(18건), 서울대학교(12건)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순위이며, 세계에서는 23위에 해당한다.

양자내성암호는 양자컴퓨터에서도 효율적인 계산이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수학 난제에 기반을 둔 암호 알고리즘이다. 최근 설계되는 양자내성암호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안전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존 디지털 시스템에서도 효율적 구현이 가능한 방식이다. 양자내성암호는 양자컴퓨터와 같은 차세대 컴퓨팅 환경에서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술로 정부 기관 및 국내외의 많은 산업체에서 새로운 위협에 대비하여 양자내성암호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 중이다.

특히 김영식 조선대 IT융합대학 정보통신공학부 교수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정부 과제 및 산



김영식 교수

업체 과제를 통해 양자내성암호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서 진행, 부호기반암호 및 격자기반암호의 설계 및 효율적 구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왔다. 그 결과 특허청에서 파악한 특허를 포함 양자내성암호와 관련된 국내외의 특허 20여 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자내성암호를 갖는 동형암호에 대한 40여 건의 국내외 특허를 등록 및 출원했다.

2021년 4월에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지원하는 정보보호 핵심 원천기술 개발 사업에 선정, '저사양 디바이스 대상 고효율 PQC 안전성 및 성능 검증 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중이다.

이 연구를 주도한 김영식 교수는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10년 이상 연구를 통해 양자내성암호 전환을 위한 실용화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와 양적으로 동급의 성과를 확보했다"며 "향후 양자내성암호 기술 내재화 및 양자내성암호로의 안정적인 체계 전환을 위한 연구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1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이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치평지점 062)381-8212~3	농성지점 062)361-4472~4	승문지점 062)528-2640~2	삼무동지점 062)372-3741~2
쌍촌지점 062)381-6551~2	동림지점 062)513-8521~3	버들지점 062)381-1971~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전지점 062)371-2772~3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